신학기 대학가 자취방 구하기 전쟁은 '옛말'

광주 지역 학생들, 고물가에 학교 기숙사·본가에서 통학
빈 방 넘쳐나자 집주인들 월세 내려도 공실률 여전 '울상'

3월 신학기를 맞은 광주·전남 대학가 원룸촌 주인들이 좌불안석이다.

고물가 때문에 원룸촌 성수기가 실종되고 빈방들이 넘쳐나고 있다. 예년 같으면 '빈방 없음'으로 도배됐던 원룸 앞에는 '방 있음' 현수막과 공지가 붙어있다.

6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전남대 후문 일대 신축 원룸촌에는 '방있음'이라는 문구가 걸려있는 원룸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신축 원룸이나 리모델링을 한 건물을 중심으로는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올해는 신축 건물조차 빈방이 남아있는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4년만에 강의가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자취방 구하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였던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원룸가에서 특수를 이용해 줄줄이 월세 인상에 나선 여파가 올해 현실이 됐다고 부동산 업계는 설명한다. 고물가 때문에 학부모, 학생들이 원룸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잇따른 원룸신축과 전세의 월세화로 인한 부담 증가, 대학교의 기숙사 리모델링 등도 원룸과 월세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강모(여·64)씨는 "예년에는 1월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졌는데 2월에도 방이 덜 차서 지난해보다 부동산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전남대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은영(여·40)씨는 "예년 같으면 연초에 대학가 전체 원룸의 95%가 나간다. 하지만 올해는 70~80%밖에 계약되지 않았다"면서 "광주에 사는 학생들도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자취방을 구하곤 했지만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 그런지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 해 통학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여대에 다니는 김모(여·23)씨는 지난해까지 광산구 산정동 원룸에서 자취했지만 월세와 생활비 부담으로 올해부터 다시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김씨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내고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내야 하면 부모님에게 큰 부담을 주게된다"면서 "주변에도 월세 부담 때문에 본가에서 다니거나 원룸을 양도하고 도중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수요가 줄자 공실이 생기면서 지난해보다 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광주여대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문병관(50)씨도 "예전에는 이맘때 공실이 없었는데 지금은 원룸과 투룸 위주로 비어있는 방이 꽤 있다"며 "수요가 줄어들면서 작년 월세 40만원이던 방이 35만원까지 내려왔다"고 했다.

조선대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박희석(70·동구 서석동)씨 역시 "한창 성수기임에도 빈방이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방을 찾는 학생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월세 하한선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동구 지산동과 서석동 일대는 지난해만 해도 전남대 인근에서 방을 구하지 못한 전남대생이 밀려왔지만 전남대 인근에서도 자취방 수요가 줄어든 탓에 이전과 다른 상황이다.

'개학 특수'가 자취를 감추자 임대업자들도 한숨을 내쉬고 있다.

북구 운암동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는 박진형(51)씨는 "작년 1월에 계약한 학생들이 올해 계약만료로 나가면서 2월 말까지만 해도 빌라 내에 세입자 없는 빈 방이 있었다"며 "작년에는 1월부터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올해는 3월이 돼서야 겨우 공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우리 동아리 들어오세요 전남대 댄스 동아리 학생들이 6일 신학기를 맞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5·18광장에서 열린 '동아리 알림아리' 행사에서 댄스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지자체, 축제 바가지 요금 점검

광양 매화축제·광주 충장축제 등 물가 대응 나서

올해부터 광양 매화축제 기간(8~17일)에 정부가 직접 바가지요금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축제 시즌을 앞두고 축제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축제 방문 인원에 따라 대응체계를 달리한다.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의 경우 행안부 책임관과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한다.

50만명 이상 규모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운영된다. 50만명 이하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해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양 매화축제가 100만명 이상 축제에 해당하고 , 영암왕인문화축제(28~31일), 정남진 장흥 물축제(7월 27일~8월 4일), 광주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10월 5일~10월 9일)이 50만명 이상 축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와 판매부스 외부에 게시한다. 또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로 게시해야 한다.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 관광객 민원에 대응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개관 1년 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 인기

화순도곡온천관광단지에 개장
광주·전남·북 초교 등 450여곳
12만명 찾아 30여종 직업 체험

화순에 문을 연 어린이 직업체험테마파크인 키즈라라가 개관 1년만에 방문객 12만명을 넘겼다.

6일 키즈라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화순도곡온천관광단지에 문을 연 키즈라라에는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220여개 초등학교와 230개 어린이집·유치원이 현장학습을 위해 방문했다.

키즈라라 어린이직업체험관에서는 소방관, 뉴스앵커, 치과의사, 스튜어디스, 조종사, 은행원, 유튜버 등 30여종의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 발전원, 유네스코 연구원, 여행플래너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직업군도 만날 수 있다.

광주은행, 매일유업, 팔도, 국세청,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등 실제 기업 간판이 달린 체험관에서 다양한 직종을 체험해 볼 수 있어 현실감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문팔갑 키즈라라 대표는 "아이들이 직업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키즈라라의 목표"라고 말했다.

키즈라라는 2012년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250억원, 화순군 205억원, 강원랜드 200억원 등을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연면적 8175㎡에 어린이직업체험관, 영유아체험관, 푸드코트, 오리엔테이션홀, 편의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완도수목원, 국립 난대수목원으로 재탄생한다

산림청 기본계획 완료보고회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인 완도수목원이 국립 난대수목원으로 재 탄생한다.

산림청은 완도수목원을 개선·보완해 국립 난대수목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인 기본계획 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완도수목원(완도군 군외면)은 1991년 개원해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자 최대 난대림 자생지였지만 전시 콘텐츠 부족 등의 이유로 한 해 방문객 수가 7만여 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립 난대수목원의 역할과 조성 방향 등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 보고회를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고 전시 콘텐츠 품질 향상을 논의했다.

방문객 공간인 '레이크 가든 센터'를 중심으로 관람 구역을 확장하고 자연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난대 숲과 다도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무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트리탑 데크로드도 조성된다.

/김다인 기자 kdi@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 감미료 ★ 합성향료 ★ 無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